



경북 의정활동

제 59호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己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린의정구현

도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0만 도민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의 충전소가 되도록...



친애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09년, 기축년
(己丑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
시는 모든 일들이 소망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전 세계에 밀려드는 경제 한파로 무척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중에도 경상북도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 국민대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해
입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
면서 올해 크게 늘어난 지역SOC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미래 경북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세게 밀려오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힘들고 불확실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과 지금보다 더 어렵고 험난했던 IMF 시기
에도 모두가 하나 되어 이겨냈던 경험을 갖고 있습
니다.

올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또 한번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역사적인 해가 되어야 합니다. 조국
근대화의 중심이자, 국난극복의 보루였던 우리 용도
경북이 주축이 되어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소피해를 맞아 끈기와 독심이 남다르고 용기 있고
부지런한 우리 경북인이 자랑스런 역사를 창조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 지속적인 개혁과 고통분담에 솔선 참여
함으로써 오늘의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올 한해도 300만 도민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의
충전소가 되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 1. 1.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相 千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제230회 정례회

- 경상북도의회 제230회 정례회는 2008년 11월 13일 11:00 본회의를 개최하여 12월 23일까지 42일간의 회기 동안 5차의 본회의와 85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13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3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9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 휴회기간인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제2차 본회의를 11월 24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조동만 의원, 최윤희 의원, 이현준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장정식 의원, 김중천 의원, 김영기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다.
- 휴회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 제4차 본회의를 12월 16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승인·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과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 휴회기간인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 하였다.
- 제5차 본회의를 12월 23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개최된 제230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 경상북도의회(이상천 의장)는 1월 7일 도청강당에서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300만 전 도민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결집하자고 다짐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1월 11일 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경북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1월 2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전국 시도회의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 당면 현안과제를 협의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1월 24일 제230회 정례회 본회의장 로비에서 시각장애우들의 의정활동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도의원들과 의회직원 등이 점자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키로 결의하고 이에 동참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1월 24일 안동 학가산 온천호텔에서 열린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면세유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방안을 경북도의회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2월 12일 도청강당에서 가진 경북 Pride상품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살길은 독창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세계적인 상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2월 29일 안동시 운흥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가진 안동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여 지역 경기도 살아나 새로운 강의 역사와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월 8일 포항시청에서 가진 경제자유구역개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이번 협약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포항뿐만 아니라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 U자형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월 9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경북여성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성이 그 중심에서 노력하여 이겨내자고 역설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호 부의장은 10월 27일 경주를 방문한 중국 하남성 서광춘 서기장을 영접하고 양 성과 도의 우호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주 일원을 직접 안내하며 신라문화를 소개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김응규 부의장은 11월 22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으로 훈훈한 지역 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격려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회(회장 손진영 의원)는 10월 20일 의원식당에서 의정활동의 성과 평가와 과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 역량의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각 및 시각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웹콘텐츠 보강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개최된 경상북도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하여 특색 있는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고향의 정이 넘치는 재래시장을 적극 홍보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도청 이전예정지에 대한 현지 답사활동을 벌였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여성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여성정책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경북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이전지가 안동·예천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안동대학과의 통합 방안과 교육수요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학교에 대한 대책 및 교육감과 전교조간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과 최근 국민의 관심사인 독도 및 낙동강 물길 살리기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쳤다.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수산국 및 농업자원 관리원 등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참외 등의 추가와 토종곡물에 유전자원 보존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건의·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촉진 방안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쳤다.



»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경주문화엑스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흑자가 나는 문화경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직원채용과 경주타워를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라리안 제품의 가격덤핑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대책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의 서류감사에서 일선소방서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구조구급활동 체계 및 각종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작동유무 등을 현지 점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포항 남부소방서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된 급수탑 활용 및 소방용수 관리실태, 내구년한이 초과된 장비의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 방안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종합 심사활동을 벌였다.



의회운영위원회 _Steering Committee



방유봉 위원장(울진)



박명훈 부위원장(경주)



고우현 위원(문경)



권영만 위원(봉화)



김만용 위원(의성)



김숙향 위원(비례)



김영택 위원(구미)



남종식 위원(청송)



박노옥 위원(봉화)



박영화 위원(고령)



윤영식 위원(예천)



이재철 위원(상주)



장경식 위원(포항)



정경구 위원(안동)



최윤희 위원(비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 제230회 정례회를 맞아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을 벌였다.

-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토·일요일 두 번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분석하여 의사일정을 수립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청각 및 시각 장애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보강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촉구하였다.

또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국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 특정주제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과 관련 연구결과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보다 의원들이 직접 연구하도록 하여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깊이 있는 용역 결과보고가 되도록 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국제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단절을 우려하고 여건이 어렵더라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지속적 교류가 필요함을 건의하고 이외에도 입법정책지원 인력 보강과 속기사의 직급상향 등을 촉구하였다.

- 한편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점차 늘어나는 용역 관련 예산은 집행의 적정성, 용역 대상과 방법, 용역성과물의 활용방안 강구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예산 집행을 요구하였고,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이외에는 집행시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이어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의 삭감과 인건비적 성격의 법정필수경비 이외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일체 편성되지 않았으나, 조금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및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심사 >>>



이상태 위원장(울릉)



장경식 부위원장(포항)



나규택 위원(고령)



박진현 위원(영덕)



손덕임 위원(비례)



이상용 위원(영양)



이상효 위원(경주)



정경구 위원(안동)



황상조 위원(경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 제230회 정례회를 맞아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건, 도민의 살림살이인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청이전예정지 현지답사 활동과 대경광역경제권 사업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먼저 집행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공보관실, 새경북 기획단, 공무원교육원,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경상북도 개발공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등 집행부 소관 7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북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 및 위원 중복 선임 배제 조치, 재래시장의 특화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개발공사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도 출연기관 연구 인력 채용시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시정 처리 26건, 건의촉구 33건을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남은 한해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였다.

● 또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연구용역비의 과다계상 및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일반운영비 등 각종 낭비적 요인 제거, 행사성 경비의 축소 조정 등을 지적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지도관리와, 특화된 재래시장 육성 등을 주문하였으며, 이번 예비심사에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지원 1억원 등 총 10건의 사업에 10억 8,300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5백만원 감액시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서울지사 환경정비 예산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계획수립시 사전 검토 부족 등을 지적하고, 대구경북중합연 수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천만원 전액 삭감한 것은 대구시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아서인지,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궁하였다.

또 기획조정실의 명시이월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발주가 늦어져 이월되었는데 내년 3월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새경북기획단이 발족한 지 3년동안 단장이 4번 교체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는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새경북기획단의 예산이 대폭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의 낙동강물길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중복성 여부를 잘 따져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 한편, 안전심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명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업무 분야별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토록 하는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업단지 명칭 변경과 신설된 다산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 이밖에도 기획경제위원회는

12.18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청이전에정지 협장 답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청이전에정지를 둘러본 후 도청이전 예정지가 내려다보이는 김무산에 올라 안동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안동시장, 예천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도청이전사업에 따른 정책대안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기획경제위원장은 도청이전은 도민의 숙원 사업으로 단순히 청사이전이 아니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인 만큼 도민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핵심도시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재원 확보대책과 유관기관이전대책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12.23일 제5차 본회의에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 및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한 대경광역경제권 발전비전과 사업계획 수립안을 보고받고, 대경권 선도산업 육성 거점 및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 관광 육성 등 발전역량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감했다.

여성정책의 과제와 전망모색을 위한 토론회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심사 >>>



이시하 위원장(문경)



권영만 부위원장(봉화)



김대호 위원(구미)



김수용 위원(영천)



김숙향 위원(비례)



김종천 위원(영주)



송필각 위원(칠곡)



윤창욱 위원(구미)



이우경 위원(경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 11월 12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과제와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06년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 2주년을 맞아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여성정책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과 정순자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권영만 행정보건복지부 위원장의 주제로 배수향 경북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윤경희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일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개발실장, 김희경 성인지 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손경희 경북도립대학 교수가 참석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여성 정책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또한 제230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감사, 인사, 새마을, 지방세, 회계, 보건복지, 여성정책, 도립대학, 지방의료원 등의 분야에 대한 300여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사항, 건의·촉구사항을 보면 총 71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26건, 건의·촉구사항 45건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쳤다.

특히,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부채와 경영수지 악화 등 안일한 경영형태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의약품 미지급금 조기 해결,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높은 낙찰률에 대한 계약의 투명성 강화, 장래용품 가격의 적정성, 의료원간 인사교류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도립의료원의 경영개선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립 의료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하면서 경영개선 대책이 실효를 거둬 도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 한편 집행부 소관 예산안 심사는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경북도립대학 등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방향으로 심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지원에 있어 관련 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재편하도록 주문하였으며, 3개 의료원에 대한 지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지원보다는 경영개선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한 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경북도립대학에 대해서는 '97년부터 도비 지원이 매년 증가해 2009년도 예산에 도비 출연금이 6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설비에 투자가 많은 것은 방만한 운영이라고 질타하였으며, 실·국별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가 쓰여진다는 점을 감안해 상호통합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촉구하였다.

● 이어서 안건심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상정한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안건심사 중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여성 도의원들이 중심되어 발의하였으며, 경북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하고 여성인력개발에 필요한 주요시책을 개발하고 각종 정책을 협의·조정하도록 하여 지역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시행에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열악한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둘째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월10만원의 구체적인 금액 규정은 일부 시·군에서 15만원, 20만원 등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도 조례에서 낮은 금액을 규정할 경우, 향후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수정가결하였다.

●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하는 한편, 사회의 소외계층과 노인복지, 아동보호, 여성가족지원 등에 대한 수혜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함께 사는 복지사회 정착과 환경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및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심사 >>>



백천봉 위원장(구미)



김만용 부위원장(의성)



권인찬 위원(안동)



김영기 위원(청송)



김응규 위원(김천)



박순범 위원(칠곡)



진찬길 위원(울진)



채옥주 위원(비례)



김지수 위원(영주)

2009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감사사항은 도교육청과 8개 직속기관, 12개 지역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 본청 환경해양산림국 등 소관 기관은 지역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하수도 등 환경행정서비스의 추진실태와 독도 영유권 보존사업 등 해양개발정책을 집중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낙동강생태체험센터 조성사업 조속 추진, 연안 침식방지사업 적극 추진 등 12건에 대한 시정 조치와 야외 경관조성사업 시행 철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및 시설 현대화 등 20건에 대하여 건의·촉구 조치하고, 칠곡교육청의 인터넷 전화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성주교육청의 방학을 이용한 조리원 무료자격증 취득 연수 등 4건의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여타 기관에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 제230회 정례회를 맞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에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도교육청 및 8개 직속기관, 12개 지역 교육청 등 집행부 소관 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 또한 집행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먼저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수질·해양·삼림 관련 사업과 최근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독도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예산 확보와 특히 한정된 자체 재원보다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공동주택 탄소 포인트제 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통상적인 여러 가지 시험연구 및



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구입과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와 필수적 경상경비인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식품 안정성 강화, 식중독 예방, 지하수·하수·폐수·공단배수 등 수질 검사, 대기 보전 등 도민의 보건·환경과 아주 밀접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분야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각종 질환의 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단체나 민원인이 의뢰하는 검사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조사업무 수행이 요구되므로 이에 따른 예산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교육수요 재정의 꾸준한 증가가 필요한 만큼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외부재원 확보와 세입재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요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재적소 및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다양한 교육수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세 186억 8,400만원과 지방교육세 1,720억 원만을 계상하고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도세 17억 1,600만원과 지방교육세 143억원 등 총 160억 1,600만원을 더 많이 계상하여 세입 차질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160억 1,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에 실시되는 경상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 분담금 186억 8,200만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모성 경비로 집행부의 자성을 당부하는 등 세출예산 편성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484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324억 7,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 이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먼저 환경해양산업국 및 관련 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 등의 추가 지원 또는 감액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비의 증·감분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중 발생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대한 잉여예산의 감액분과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기정예산의 불가피한 사업의 추가·변경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통상적인 추경수준을 벗어나는 1,016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중 215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이 반영되었음을 지적한 후, 앞으로 재발방지를 촉구한 후 원안 가결하였다.

● 한편, 안건심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내 유치원 원아 및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교의 신설 내지 폐지에 관한 사항과 학교이전 및 교명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치하하고 내년에도 우리 경북도민이 쾌적한 삶의 터전에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실상 교육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및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 >>>



김영만 위원장(군위)



박노옥 부위원장(봉화)



남종식 위원(형성)



박기진 위원(성주)



윤영식 위원(예천)



이중원 위원(상주)



이준호 위원(청도)



정무웅 위원(울릉)



조동만 위원(명양)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농수산국, 농업자원관리원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농업기술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신물질연구소 등 집행부 소관 8개 기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14건과 건의·촉구 사항이 19건 등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주요 건의·촉구사항의 내용을 보면 농수산국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참외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촉구하고, 매년 추경예산 편성시 쌀



소득보전특별지원을 위해 1ha당 10만원 정도 보상을 하였는데, 올해에도 35억원 정도를 예산부서와 상의하여 추경 예산에 편성토록 촉구하였다.

또한 배수개선 및 지표수개발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시군과 농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일감맞기사업장의 폐업, 운영중지 등으로 정상운영이 50% 이하인 바, 향후 활성화대책과, 포항 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 벼 품종 육성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촉구·건의하였다.

● 또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첫째날인 2월 1일 농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 4,087억1천8백만원, 세출예산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도비출연 4억5천만원과 농약안전장비 지원 1억원, FTA대응원예작업개선기자재 지원 1억5천6백만원, 우수농산물 육성지원 6천만원, 전원생활체험학교 시범 운영 2천5백만원, 친환경축산 지원 9천만원, 우량송아지 육성률제고사업 3천5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 1억8천만원과 FTA대응한우 우수성홍보대회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축산농가송풍기지원사업 2억3천6백만원과 농업CEO발전기반구축 지원 4억5천만원은 각각 부기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이어 둘째날인 12월 2일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 143억7천5백만원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농업인 한마음대회 3천만원과 사과왜성대북경지삼목자금 묘 생산 1천2백만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2천2백5십만원 등 6천4백5십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경북명품과실생산단지 1천8백만원, 과수재해피해경감 1천5십만원, 고령농을 위한 표고 재배 기술개발 보급 3천만원, 에너지 50% 절감 버섯재배기술 6백만원 등 총 6천4백5십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 연이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지원 또는 감액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비의 증·감분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농수산국 및 농업 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 한편, 안전심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경상북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이번 상정한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농산물 교역자유화 확대에 대비하여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의 자궁신 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학점제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 >>>



한혜련 위원장(영천)



이재철 부위원장(상주)



박병훈 위원(경주)



박순열 위원(청도)



방유봉 위원(울진)



백영학 위원(김천)



안순택 위원(의성)



장세현 위원(포항)



최윤희 위원(비례)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정례회를 맞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한데 이어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경기침체가 확산되어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예산 조기집행 등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주재관의 선발과정부터 복귀 후 부서 재배치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을 개원하면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할 때부터 특혜성 시비가 있었고 연수원에 대한 예산지원과정에서 노총 경북본부 측의 불법영업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관광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관광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므로 조기에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시설중심의 대규모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경북만의



특성과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소규모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관광산업이 미래형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국가간·자치단체간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어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 공예품 생산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촉구하고, 문화재(고택)보존과 관련하여 흰개미 피해 등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전통한지산업 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지 관련 공예 및 전시회 개최만으로는 한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시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중복되고 있다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 또한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먼저 투자통상국 예산심사에서는 기업규제완화, 환경개선 등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기조와 동해안개발계획, 광역경제권별 전략산업 육성 등 우리 도의 경제환경 변화의 가속화,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 수도권규제완화 등의 요인으로 인한 지역내 수출 감소와 함께 투자심리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국내·외 기업인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이미지 제고로 투자확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자립기반이 취약한 분야의 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다지고, 본격적인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통상·투자·관광 등 해외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된 것은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중소

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된 공무원해외연수여비의 경우는 최근 종부세 폐지 등으로 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는 가급적 자제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관광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의 구축, 고객중심의 맞춤형 홍보 마케팅 및 해외시장 중심의 탄력적 마케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광산업분야 예산이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65%에 그치고 있는 것은 21세기 미래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의 집중육성과 관광경북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관광산업국」을 신설했음을 감안할 때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연이어서 문화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화체육분야 예산의 경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나 증액된 것은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하고, 문화를 통한 삶의 질 증진과 차세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의 육성, 전문·생활체육 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도의 경우 그동안 우수선수 육성·지원 등에 노력한 결과 전국체육대회에서 2006년 2위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북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수 선수의 육성·발굴 등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안 심사 >>>



김기홍 위원장(영덕)



김영택 부위원장(구미)



고우현 위원(문경)



박명화 위원(고령)



손진영 위원(영주)



이현준 위원(예천)



장길화 위원(비례)



장두욱 위원(도향)



장병익 위원(군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 제230회 정례회를 맞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건설도시방재국 및 종합건설사업소, 소방본부, 지역 소방서 등 집행부 소관 6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예산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 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먼저 건설도시방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도로망을 확충하면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였고, 현재 주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나 경찰의 신고에 의한 포장뒤틀썩우기를 하는 재래식 방법에서 탈피하여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포장유지관리시스템인 FMS기법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도시분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배치보다는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규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수도 권규제완화로 공장의 미분양 및 이탈을 우려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동 공장 분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의 단속을 위해서는 통행량이 없는 야간에 집중단속을 벌여야 함을 지적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도로유지용 건설장비의 가동률을 높여줄 것과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과 원거리에 위치



하여 운송비 부담이나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폐기물 사업체가 근거리에 지정되어야 한다고 촉구·건의하였다.

한편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교대 근무제 도입이 가장 급선무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조직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격일근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국보급 전통 사찰이 소재한 경주, 안동, 영주의 문화재에 소화전 등 화재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승례문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이 우려될 수 있음을 질타하고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상해시 골절이나 화상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이 설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이어 의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119안전센터나 지역대의 부지 소유권이 대부분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를 도에서 취득 또는 기부 채납받아야 된다고 주문하였으며, 포항남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된 급수탑의 활용상태와 소방용수의 관리실태를 집중 추궁하였으며, 경주소방서에서 국가주요보호 시설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소방안전대책을 당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 시설 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집행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고, 서해안에 비해 낙후된 우리도의 동해안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고속도로와 철도를 조기에 건설토록 주문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내년도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여 사회간접시설을 더욱더 확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매년 감액하던 건설도시방재국 예산

안을 금년도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이어서 소방본부 예산은 노후 소방장비 보강 및 청사 신축 등 시급한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증액하고 경상 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등 행정절차가 미흡한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 예산 등 31억여원을 감액하고,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사업비 31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연이어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이월사업이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으며,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금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수립에 좀 더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 31억여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철저히 따졌으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사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소방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안전심사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장길화 의원 등 26명이 발의 상정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의 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되어 실제 토지소유자는 자기 땅에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구분하기 곤란한 실정이어서 신설된 지 3년 이상 지정실적이 없는 제2종 자연경관지구 등 12개의 용도지구를 폐지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도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변경하였고, 시장·군수에게도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한 공동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구성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운영에 좀 더 유연성을 가지도록 조례를 완화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에 중점 심의 >>>



이우경 위원(경산)



김영기 부위원장(청송)



김영택 위원(구미)



나규택 위원(고령)



박기진 위원(성주)



박순범 위원(칠곡)



안순덕 위원(의성)



이상용 위원(영양)



이상효 위원(경주)



이시하 위원(문경)



이종원 위원(상주)



이준호 위원(청도)



장병익 위원(군위)



장세현 위원(포항)



채옥주 위원(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 제230회 정례회를 맞아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 영향으로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을 대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 경기 부양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하였으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사하였다.

●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물가안정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예산항목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중복투자,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성, 관련 법규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지역간, 계층간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으며, 특히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경비 30%를 과감히 삭감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용역비에 대하여도 30% 이상 삭감하여 경기부양 예산에 중액 편성하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의 경우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조 5,775억원중 일반회계는 지방의료원 채무상환 등 99건에 113억 360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51건에 67억 2,66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45억 7,7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기타 회계전입금 8억 5,000만원은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 신입생보급 TV 및 라디오 광고 등 5건에 8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기금 운용계획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도비출연금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조 5,372억원중 세입부문에서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2건에 160억 1,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 공무원복지기금 보조 등 43건에 306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차액 145억 9,9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려 긴급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하였다.

● 한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08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최근 내수부진, 투자위축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종합심사를 벌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급변하는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최종 정리와 기정 예산의 집행 잔액 정리, 이월사업을 확정된 예산으로 되어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로 2008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경상북도의 경우 4조 7,937억원이며,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2조 7,77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최근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산불감시원 인건비 단가 5만2,5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필요

» 박 노 욱 의원(농수산)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최근 이상고온과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가을, 겨울철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의 위험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는 236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면적은 196ha로 재산상 피해액도 3억4,355만여원에 이르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우리 도는 시군과 공조해 산불원인별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예방사업과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을 방지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불예방과 감시, 진화를 모두 떠맡고 있는 일선 시군의 경우 엄청난 예산 부담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업무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도비와 국비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산불 유급감시원 운용 등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가뜰이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원의 시군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산불유급감시원은 2005년의 경우 유급 감시원이 1,000명이었으나 산불위험성 증가 등의 원인에 따라 2008년 10월 현재는 1,200명으로 늘어났으며 예산액도 2005년의 경우 50억4,000만원이었지만 2008년10월 현재는 75억6,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5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산불유급감시원 예산은 여전히 도비 10%와 시군비 90%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총예산 75억6,000만원 중에서 도비는 7억5,600만원이며 시군비는 68억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유급원의 사역에 따른 일선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더하여 산불예방에 따른 유류대 소모가 많아 이를 감안한 실질적인 사역단가가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감시원의 도비부담을 현재 10%에서 50%로 하고 유류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단가를 현재의 5만 2,5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산불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천에서 경산을 경유하여 대구광역시 동구까지 이르는 금호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제안

» 한 해 련 의원(통상문화)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고유가시대의 도래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운동이 확산되면서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 1997년부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총 계획연장 1,868km 중에 290억원을 투자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10월 현재 23개 시군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모두 220개 노선에 591km 정도로 도내 도로개설 1만2,192km 대비하여 자전거도로의 개설비율은 4.8%에 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향후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을 통해 에코트레일 개선사업에 자전거도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다행입니다만 이 역시 자전거도로가 일부 구간내에만 있어 운영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타기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영천에서 경산시를 경유하여 대구광역시 동구까지 이르는 금호강변 자전거도로의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으로 영천과 대구를 오고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자연이 살아 숨쉬고 생태의 보고인 금호강변은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아름다우면서도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금호강변을 자연훼손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자전거도로로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금호강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면서 경북도민과 대구시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자연생태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상 영천시 망정동 그린환경센터에서부터 경산을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 망우공원내 사이클 경기장까지 총연장 38.6km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호강 자전거도로의 개설 추진과정에 있어 영천시와 국토관리청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남북지역의 금호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영천과 경산지역의 문화답사 등도 활성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경주, 포항 등과의 관광연계도 모색하고 나아가 낙동강프로젝트로 인한 소외지역의 지역균형개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개인별 포획수량 제한에서 수렵장별 일정한 수만큼만 포획하는 방식으로 변경 건의

» 이 상 용 의원(기획경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30회 정례회에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3항에 의거 고시되는 순환수렵장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렵은 거친 자연을 누비며 짜릿한 스릴감을 즐기는 겨울철 최고의 레포츠입니다. 수렵장을 개설하는 경우 유해조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수렵장 사용료로 인한 시군의 세입증대와 업사들이 지역에 몰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포소지 허가증을 받는 것에서부터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수렵장을 운영하는 시군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각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렵을 할 수 있고 없는 등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수렵면허도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 고라니, 청솔모를 잡을 수 있는 황색포획승인권, 조류를 잡을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 등의 구분에 따라 수렵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중에서 수렵면허 기간 동안의 포획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렵장 개설에 따른 포획승인 수렵동물 현황을 보면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는 1인당 3마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멧비둘기, 꿩, 어치 등은 1일 1인 각 다섯 마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획한 동물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 후 야생동물승인 표시링을 달아서 유통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포획수량을 제한해놓고 있는 이유는 조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렵기간동안 수렵장 사용료를 내고 지정된 수렵장의 최대수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업사들로 하여금 골고루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획제한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사들은 당국의 관리감독이 산속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포획 제한수량 이상을 포획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수렵장에서는 잡은 동물의 종류와 수량을 5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획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획 마리수 제한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수렵한 동물들을 반출하여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마구잡이식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밀렵으로 이어져 수렵장의 개선을 통해 유해조수의 개체를 조절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물론이거니와 야생동물의 보호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1인당 포획수량을 제한함으로써 엽사들이 사냥하기 쉬운 곳으로만 몰려서 정작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렵동물에 대한 포획수량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어느 엽사가 포획하든지 수렵장마다 일정한 수만큼만 포획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유해조수를 효과적으로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수만큼 포획이 되면 수렵을 금지시켜 개체조절을 위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포획조수에 대한 정확한 신고로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도 제대로 될 뿐 아니라 엽사들의 밀렵꾼 전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공동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야생동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서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렵장 개설을 통하여 개체조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에 규정된 참전명예수당 지급 촉구

» 송 필 각 의원(행정보건)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심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 대표적인 역할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나아가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란 이미 그 권한 속에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 후 단체장이 공포하는 절차를 통하여 단체장의 조례에 대한 책임성과 준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경상북도민의 복리증진을 반영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는 2007년 6월 14일 도 조례 제 298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경북이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의 마지막 보루로서 최고의 격전지였음과 국가안보정신 강화를 감안하여 조례 제8조에 참전명예수당을 특별히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는 평균 79세, 베트남 참전용사는 60세를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은 연령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노인 세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이 살아계실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했던 참전명예수당의 조례제정이 2년이 되어가는 데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의결하고 도지사가 공포한 법률로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스스로 공포한 조례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도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조례제정이 실행되지 않고 무시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는 조례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실현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하여 의용소방대원 출당수당을 전액 도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

» 권영만 의원(행정보건)



존경하는 이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에는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371대의 의용소방대에 1만2,049명이 시·군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시·군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가 설치되기 전부터 조직되어 지역주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회 발의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임용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2009년 1월1일 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시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은 도지사가 임용하고 군지역은 해당지역 군수가 하던 것을 경상북도지사로 일원화하였으며, 수당, 장학금, 요양, 장애, 장제, 유족, 성과중심보상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새해예산을 보면 조례 개정 전에 지원하던 출당수당은 횟수가 크게 줄어 의용소방대 출당수당이 4회에 16억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08년 예산 기준으로 시·군 1인당 12회 편성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은 1992년 이후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전환되어 16개 시·군 모두 조례를 정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례를 개정하고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충청남도의 경우는 출당수당을 1인당 17회로 하여 전액 도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의용소방대원의 임용을 일원화와 동시에 도의 책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던 출당횟수보다 오히려 적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례의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임용은 도지사가 하면서 시·군에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임용권을 가진 도지사의 책무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출당수당을 전액 도비로 하고 최소 15회의 예산을 편성하기를 촉구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최근에 증가하는 집중호우와 산불 등 각종 재해발생시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처하고 지원봉사 활동과 지역 방재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군단위에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부족한 소방인력의 대처와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조례에 근거한 임용권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당수당을 전액 15회 도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동 만 의원(영양) 농수산위원회



2008년 11월 24일 제 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은?

답) 지난 10.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는 일방적인 수도권 위주의 선·후가 뒤바뀐 발표임.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역광장에서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11,194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9회, 균형발전협의체 회의 4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순회 전국 회의 5회, 수도권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와 전후하여 지역균형발전 이행촉구 국회 결의대회, 10월초부터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연구팀운영, 긴급 성명서 발표 및 철회요구,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서울지하철 홍보방송, 11월 19일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 지방살리기 정책과제 건의 등을 통하여 지방우선의 재정지출 및 비수도권 SOC사업 우선 추진과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과 200조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기금 조성 등 다양한 수도권 규제완화 활동을 추진하였음.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중앙부처에서 시도에서 건의한 자료를 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선 지방 발전 대책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와 지방발전대책 발표예정인 12월 8일까지 정책과제가 적극 반영되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비수도권 시·도 공동협력, 지방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오는 12월 예정인 지방발전대책 발표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하겠음.

질) 농림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음식점 원산지 단속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용의는?

답)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동처리법으로 이원화된 관리법령 일원화를 위해 '08년 7월 제1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리법령 일원화를 정부에 건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부내 협의를 거쳐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08년 8월 김춘진 의원 등이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한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의견 조화 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음.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법령이 정해지는 대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금년도에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를 실시하여 185개소를 인증하였으며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민간 자율 감시단」 1천명을 위촉하여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점검시 적극 활용하고 있음.

질) 추위 속에서 마음마저 쫄쫄 얼지 않도록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비 지원대책 및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 실적은?

답)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동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동모금회 道지회와 협의하여 월동대책비로 17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유류대 등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또한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거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지원 실적은 하계방학에 26,224명에 23억 6천만원 동계방학에 26,224명 47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대상명단을 통보받아 읍면동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결식아동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 가뭄에 대비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산불예방대책, 농업용수확보대책 등에 대한 대책은?

답)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현재 강우량은 820mm로서 전년도의 66%로 예년의 61% 수준이며 최근 3개월 도내 강수량은 예년의 1/6 수준임.

장기 가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해 먼저 가뭄대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비상 급수 장비에 대한 일제점검 및 장비 보완과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소규모 급수시설 87개소에 44억원을, 2단계로 마을 상수도 5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89개소에 171억원의 예산을 우선 투자할 계획임.

또한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국·도비 44억원 투자하여 관정개발 등 비상조치를 강구하고 내년 초 봄 가뭄을 대비 92억원 투자하여 저수지 퇴적토 정비, 산불 진화대 확충, 소방헬기 공중진화 능력 배양 등 긴급태세를 강화하고 2009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총 20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로 한해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예비비 투입 등 추가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질) 도청이전에 따른 관련 기관 이전계획 및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은?

답) 도청이전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6월 이전예정지가 선정되고 도청소재지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1. 13일 도청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이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도청 이전을 위해서는 도청이전 신도시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과 도청이전 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는 경상북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상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유관기관 단체 186개중 소재지를 대구에 두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73개가 이전 대상이며 경북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와 대구·경북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단체는 자율적으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단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08년 8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이 정하는 새로운 사옥 마련시 지방세제 혜택부여와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지원, 부지 매입비, 청사신축비 등 장기저리자금 앞선, 각종 인·허가시 편의 제공,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마련을 지원할 계획임.

앞으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일제고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대책과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로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교와 학생수 현황, 향후 공교육 불신을 해소할 대책은?

답) 일제고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업성취도 측정이 필요한 점과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제고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 설명하겠으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교는 없으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은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이 거부하고,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 등교를 거부한 학생은 초등학교가 3개교에 학생 21명으로 향후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의 기본 학력 정착과 학교 교육력 제고, 2010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하여 학교별 성적이 공개,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업성취도평가, 학생 개인에게 내재된 소질, 적성, 능력 개발, 창의성, 리더십, 전문성을 가진 학생 육성을 통한 공교육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명예퇴직 후 교사 임용수와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신 분들의 현황과 보건교실 현대화 계획은?

답) 먼저 지난 2월과 8월 명예퇴직 후 신규교사 임용은 27명으로 모두가 초등교사이며, '09년도 교사 수급계획은 신규채용이 747명으로 초등교사가 518명, 중등교사 229명이고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된 교사는 301명으로 초등교사가 283명, 중등교사 18명임. 다음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보건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03년도부터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6억원을 투자하여 205개 학교의 보건실을 현대화하였음. 앞으로 '12년까지 매년 25억원을 투자하여 400개 학교의 보건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보건실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2008년 11월 24일 제 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 윤 희 의원(비례) 통상문화위원회



질)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자연환경 훼손과 농민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대중골프장의 편법 회원모집에 대한 대책은?

답)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방골프장 세제개편으로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엄정한 영향평가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으며,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 마을발전기금 지원, 진입도로 개설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환경훼손 대책과 농민의 삶의 터전 보전대책으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등을 거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높거나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과 우량농지는 골프장 편입을 원천 차단하고, 가급적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에만 건설토록 유도하겠음.

대중골프장의 편법 회원모집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법령의 불일치로 편법운영 되는 사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현행법 내에서 골프장이 운영되도록 수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생활스포츠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도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공동냉장시설과 물류시설 구축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답) **최근 경제위기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지역에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 등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은 편의점·대형마트 출현과 인터넷 및 홈쇼핑 등 다양화, 대형화 추세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기반시설 노후 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인구감소와 상인의 고령화, 마케팅과 홍보부족 등 운영상 문제점까지 안고 있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재래시장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92년도부터 1천 5백여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및 5일장 중점 육성사업 등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포함 죽도시장 등 17개소에 시설현대화사업과 5일장 중점육성사업 15개소,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민·관 합동으로 3조 4,873억원을 투입하는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에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핵심내용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관광지와 특산품을 연계하여 관광형 주말시장으로 전환하고 시설현대화사업과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고객 쇼핑의 편의성 제고, 케이블TV, 지역방송에 재래시장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장·상점가 등 소매상인 대상 마케팅·영업기법 등 맞춤형 교육 실시, 물류창고 마련,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

질) 영어 공교육 관련 영어마을 합숙교육보다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비합숙 영어체험교육 확대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도내 초등4~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절감, 다양한 영어체험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100백만원을 확보하여 시군의 초등학교 학생수의 비율에 따라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451백만원, 시군영어체험센터 및 대학영어캠프에 549백만원, 울릉군 영어체험 학습시설 구축에 100백만원을 지원하여 영어체험학습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입소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자부담은 대구

경북영어마을은 46만원중 도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6만원이며, 시군영어체험센터 및 대학영어캠프는 30~42만원중 도비 3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비는 합숙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영어는 오래 접하고 사용하는 체험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비합숙 영어캠프 확대문제는 사업주체인 시군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학부모님의 희망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음.

질) 여성공무원에 대한 희망 보직제를 실시하는 것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우리 도 여성공무원은 5,928명으로 전체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무원 채용합격자 626명중 40.7%인 255명이 여성으로 해마다 여성공무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도에서는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95년 전국 최초 도 전입시험 여성할당제를 실시한 결과 7급 이하 여성공무원 비율이 '96년 4.5%에서 '08년 35.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보직도 민원·복지 등 여성위주의 특정부서 배치를 지양하고 기획·예산·감사·인사·평정부서 및 실국 주무과에 우수 여성공무원 전진 배치하여 조만간 많은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임용될 것으로 예상됨.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해 여직원휴게실 증축, 성희롱상담실 운영, 육아휴직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여성인사위원 2명 위촉, 도청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일과 가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여성정책개발원의 재정비를 통해 여성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97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여성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중앙과 차별화된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지역여성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그동안 정책연구, 교육사업, 학술사업 등 다양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연구과제 69건 중 57건, 교육사업 74건 중 14건 등을 우리도 여성발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족형태의 다변화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능력과 열악한 조직규모로 인해 연구과제 수행에 전문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이에 우리 도에서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여성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 여성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현재의 조직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정책개발의 선도 기능을 수행하는 등 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 증원도 검토하는 등 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여성가족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제 몫을 다하고 지역 여성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질)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수 확대와 원어민을 대체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영어전문강사 활용방안, 영어교실 구축보다는 그 비용으로 기존의 민간 영어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 우수 원어민 교사 확대 배치와 영어 전문강사 활용방안은 원어민의 획기적 증원을 위하여 신규 원어민 120명을 '09년 2월에 배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부에 초청 의뢰를 하였으며, 내년 2월 배치를 위한 심사 시 영어 및 교육관련 자격증을 갖춘 원어민을 우선 선발하여 양질의 원어민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영어 전문강사 활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도 양질의 영어 전문강사를 적극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겠음.

영어교실 구축과 관련하여 기존의 프로그램과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나, 지역별 학생을 수용할 민간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하여 많은 학생의 수용이 어려우며, 개인별 사교육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우리 도의 경우 주로 농·산·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경북의 여건상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년별·학기별 정규수업에 중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고정형이 아닌 가변형의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영어도서, 학습자료 등을 구입·활용하여 교과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이 현 준 의원(예천)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 11월 24일 제 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道 차원의 전담팀을 만들거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답)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道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으로 전국을 5~7개 정도로 광역화하는 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이 중앙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편의성 제고에 있다고 본다면, 목적에 부합하는지 한번 더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됨.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동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에만 치중한 안으로서 신중양집권화와 국민 갈등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는 국민생활과 통치구조 등과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게 얹혀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현시점에서 본다면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 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추진함이 타당함.

또한 전담팀 구성문제는 본 사안들이 가시화될 때 道와 시군관계공무원, 학계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대하는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가 처음 논의 될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질) 안동·예천지역이 도청이전지로 결정됨에 따라 경북도립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국립 안동 대학교와의 통합 및 차선책으로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 제안에 대한 견해는?

답) 경북도립대학은 농어촌지역 고등교육 기회제공과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해 설립되어 현재 5개학과 3개계열, 정원 940명으로 신 도청이전지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학생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취업이 잘되고 특화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산학일체형 교육·기능별 교육 프로그램 강화로 현장중심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 취업중심대학으로 취업률 제고, 학교기업 라오닐의 자동차 특수도장기법의 개발 등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음.

국립안동대학교와의 통합 및 4년제 전환은 최근 경북대-상주대, 서울보건대-을지의과대 등의 통합사례를 보면 국립대간, 사립대간 통합사례는 많으나 국립대와 도립대간 통합사례는 없으며, 안동대학교와의 통합 및 4년제 전환문제는 도립대학 설립취지와 목적을 살려나갈 수 있을지 여부와 이해당사자간의 입장, 도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임.

질) 태양광발전소 관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후 시공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 분석 등 사후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방안은?

답) 태양광발전사업의 현실은 허가건수에 비해 실제 사업에 착수된 사례가 저조하며, 산림 및 농경지 형질변경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허가면적 분할 및 분리하여 허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술집약형산업으로 노동력의 수요가 적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음.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사업)산업의 정부정책은 석유자원의 고갈과 교토의정서 채택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일정량의

탄소발생량 감소가 강제화되면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불가피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자치단체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우리 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법상 저촉 여부는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 지역의 여건,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시·군과 협의를 강화하여 허가하고, 시공관리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고 있으며, 효율성 검증을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태양광 관련 자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시행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허가에서부터 상업운전 후까지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하겠습니다.

질)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답)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는 '92년 리우 세계 환경정상회의 이후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교토의정서에 따라 '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당면 현안이 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 추진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 제시, 중요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세부전략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금년 9월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형 녹색성장은 새로운 경제발전의 전략임.

경북은 에너지 산업기반과 낙동강, 백두대간 등 천혜의 녹색성장 자원을 보유하고 이들을 활용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등을 전략 프로젝트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산업의 최대 집적지이자 한국 녹색성장 전략의 최적지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경북의 대표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향후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낙동강과 백두대간 에코벨트 조성, 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등 녹색성장 전략프로젝트들의 내용과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고, 녹색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그린에너지 투자유치벨트 구축, 동해안권 에너지 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 단지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대책,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생물, 식품, 산림 등 친환경 유망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저탄소 그린도시, 그림흙 10만호 보급,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을 종합적인 분석과 기술용역을 거쳐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조사 등 인벤토리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동해안 에너지벨트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린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정책이 자연환경을 파괴할 소지가 있는데 지사의 견해와 독도의 해역 보전방안,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캐릭터를 수정할 의향, 독도까지의 여객선 운임지원, 독도 방문객을 위한 편의제공 방안은?

답) 독도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파괴는 독도 영토수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정부와 도의 기본 입장으로 주민숙소, 현장관리사무소를 친환경적으로 건립하고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독도 해역 보전을 위해서 독도 해역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갯녹음(사막화)현상 방지를 위하여 해조류 자원 증강과 바다 숲 조성사업 등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독도 캐릭터는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일장기 연상 등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임.

독도까지의 여객선 운임지원은 영토수호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울릉도에 입도하는 방문객에 대하여 운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요청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 중에 있으며, 독도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독도 현지에 공무원이 상주하여 방문객 안전관리 및 안내에 임하고 있으며, 여객선사에 보다 향상된 내용의 홍보물(책자, 비디오)을 제공하고 독도알림이 해설사 양성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또한 독도 체류시간 연장, 방문루트 개선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



장 경 식 의원(포항) 기획경제위원회



2008년 11월 25일 제 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책 발표이후로 대응 늦추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향후 계획은?

답)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전 세계는 극심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또한 내수경기 침체, 금융불안, 성장을 둔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교육지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우리 도는 지역균형발전협약의 의의장식을 맡고 있는 道로서 수도권 집종의 폐해를 수차 지적해 오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도의회에서도 「천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해 왔음.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등 지방대책을 준비 중에 있어 우리 도는 국가전체 차원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공조와 협력을 통해 지방의 실리를 찾는 것을 우선 전략으로 하고 있음.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버금가는 지방살리기 대책을 얻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열악한 지방의 SOC 및 R&D 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국책사업의 지방 우선 투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지방에도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농지와 산지 이용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개발제한 구역의 대폭적인 해제 건의와 지방세제 개편 및 지방교부세를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함께 요구하였음.

지방의 대응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며, 지방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질) 지방경쟁력 강화 관련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는?

답)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정은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도의원 정수를 행정구역(국회의원 선거구)별 2인으로 일률 배분함으로써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0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권고되어 국회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사안임.

다만,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의 획정은 단순한 인구만이 아닌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정치권의 사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 입법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주에 승마대회를 유치한 사유와 예산 확보방안, 관련 업무의 상주시 이관과 전담조직 문제, 구미와 영천의 승마시설 활용방안은?

답)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승마대회를 유치한 것은 정보 입수에서부터 대회 유치까지 일정이 촉박하였고 심사에 필요한 대회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9개월 정도가 필요함으로 인해 중앙 정부에 사전 승인 신청여건이 되지 않았음.

대회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은 특별교부세와 축산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확보하고 道 예산과 상주시 예산 등을 확보하여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상주에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상주는 새롭게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삼국시대부터 말 관련 역사를 보유한 지역으로 국제대회 개최 이후 각종 승마대회를 많이 유치하므로 마필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하게

되었음. 관련 업무의 상주시 이관과 전담조직 문제는 금년 3월 도와 상주시에 별도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중앙 부처와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도는 대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상주시에서는 대한승마협회와 대회를 주관하는 모든 집행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구미와 영천의 승마시설 활용방안은 거리상의 문제와 말의 이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질) 최근 3년간 우리도의 용역발주 현황과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용역발주는 물론 객관적인 연구용역결과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답) 연구용역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며 학술용역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책 등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기본 계획, 단위사업 계획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있으며, 기술용역은 전문기술자의 과학·기술 능력을 활용, 구체적인 사업 수행 용역을 말하며,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집행 현황은 총 321건에 572억원으로 학술용역이 96건에 170억원, 기타 기술용역이 225건에 402억원임. 연구용역 추진점진 결과 학술용역은 경북발전을 위한 미래의 전략프로젝트 개발 등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중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07년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은 우리 도 전략사업의 핵심인 낙동강 신성장축 개발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용역이며, 「낙동강 생물관 및 에코벤션」, 「낙동강 에코트레일 및 에코톤」 조성 용역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국책사업화하기 위한 상세 계획이며, 「낙동강 연안지역개발 기본계획」은 낙동강 물살리기 사업을 국가시책화하기 위해 우리 도와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며,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법정계획이며, 「새경북 비전 2010」과 「새경북발전전략 2020」은 각각 새로운 경북 미래 설계를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단계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임.

앞으로 용역사업의 체계적이고 엄정한 관리는 도정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합리적인 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 필요하고 과다한 연구용역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여 기술용역은 회계계약심사를 강화, 비용과다계상과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학술용역은 「학술연구용역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학술용역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겠음.

질)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농어촌지역 환자 등의 교통과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병원 운영 필요성은?

답) 먼저 의료현황으로 우리 도의 종합병원 1개소당 인구수가 175,642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159,396명보다 높고, 의원도 1개소당 인구수가 2,311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1,854명보다 높으며, 의사수도 의사 1인당 인구수가 757.7명으로 전국 평균 573.7명보다 많음.

이에 농촌지역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07년도에 제2기 병상수급계획(2007~2010년)을 수립·시행하여 의료환경 개선을 체계적이고 수준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환경이 취약한 보건기관 및 민간 병·의원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매년 100억원 규모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시설이 미흡한 취약지역에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에 지원하고, 의료기관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역적으로 일부 전문과목별 개원의사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선향을 조성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유도하고, 의료사각지역에 대하여는 공중보건 의사 중 전문의사를 우선 배치하여 의료취약지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의료취약지역 이동병원 운영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의료 및 출산 사각지역에 대하여는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갖춘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일반검진 및 산부인과 진료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보건 의료취약지역 도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08년부터 보건복지여성분야 전문단체들이 연합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질)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상담전문가 양성, 전문상담교사 증원,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에 대한 견해와 학교폭력 근절 종합적인 대책은?

답) 학교폭력 상담전문가 양성은 '08년 98명의 교육상담센터의 전임상담원을 양성하고 '09년 100명의 전임상담원 양성 계획이며, 교사 상담 연수 450명,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대상 연수 1,800명을 실시하였음.

전문상담교사 증원은 전문상담교사 현원 74명으로 전임상담원 양성으로 상담 자원 확충 대처하고,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는 현재 73교 81명으로 내년 100명 정도 확대 배치할 계획임.

학교폭력 근절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인성교육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상담 서비스의 충실한 제공, 합리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 안전통합시스템, 멘토링 사업, 친한친구교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CCTV 설치 등으로 학교 폭력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김 종 천 의원(영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8년 11월 25일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문제와 중증 의료환자에 대한 의료체계 지원 방안은?

답) 농어촌 중증 의료환자 의료체계가 미흡한 것은 민간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상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임.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94년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매년 100억원 규모의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지역 거점 병원인 지방의료원과 오·벽지 보건소간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의료 및 출산진료를 위해 초음파검진기를 갖춘 이동검진차량 운영 확대, 취약 지역 민간병원의 시설개선과 인력확보 지원과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전문의사 근무유도 및 농어촌 지역 개원을 유도하고 있음.

중증 응급환자 진료체계 대책으로는 현재 권역별·지역별로 35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장비의 현대화,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긴급구조 인원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향후 구급차량 성능향상과 응급구조사 자격자 배치, 응급환자정보센터 활성화, 소방대원과 진료원 등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확대 실시 등 의료기관과 상호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응급환자 이동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음.

북부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중증급성기 병상 공급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여 우리 도에서는 '04년 영주지역 도립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의료기관의 적정규모, 경영상 수지타당성 등이 지적된 바 있음.

앞으로 정부의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에 따라 영주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민간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4년마다 수립되는 우리 도의 병상수급계획 수립시에도 지역의 달라진 의료환경을 반영하여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음.

질) 도립의료원의 의약품비 미지급 관련 도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의약품비 미지급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답) 의료원의 의약품비 미지급에 대한 주된 요인은 의료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증축 및 리모델링 후 병상 확대운영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곧 공공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추진에 따른 경영 적자로 이어져 재정상태 열악과 지급 지연 발생하였으며, 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의료수익 향상과 내부자금으로 순차적으로 상환기간을 단축하고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년내 지급기간을 5개월로 단축토록 권고하였음.

참고로 의약품비 지급기간이 건강보험공단이 3~6개월, 전국 34개 의료원이 11개월이며, 도내의료원이 13개월로 타 지역의 의료기관 보다 높은 실정으로, 이는 의약품 구매 시기가 매년 12월로 의약품비 청구 환급기간 지연 등의 사유로 익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지급 지연이 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원 특성화 사업과 합리적 경영개선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으로 의료수익을 증가시켜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보험재정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질) 도립의료원의 의약품 고가 낙찰 구입에 따른 도민부담 및 보험재정 손실에 대한 해결책은?

답) 의약품 구입 고가 낙찰의 문제는 의약품비 지급지연이 낙찰률을 높아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도민의 부담과 건강 보험공단의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해결책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 특별 감사에서 지적인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률을 낮추고, 특화사업 등 경영개선을 통해 의료수익을 증대시키고 의약품 구입비를 조기에 지급하여 낙찰 단가를 낮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 법률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료원간 상호 업무교류 및 타시도 의료원의 벤치 마킹을 통한 선진 업무기법 도입과 워크숍, 계약 및 회계 실무교육 등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음.

질) 도립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 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에 따른 병원행정에 대한 조치 방안은?

답) 도립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은 기본적으로 조달청의 G2B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규금액 이하 또는 특수 장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료장비 구입은 장비를 사용하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장비심의 위원회를 거쳐 품평을 하고 시장조사를 한 후 입찰을 실시하고, 대부분의 의료장비도 외국산으로 입찰 참가 업체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함.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겠으며, 만약 담합의 물증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제제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업무담당자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질) 경북도내 학교시설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완계획은?

답)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05년 7월 18일자로 3층 이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며, '05년 7월 18일 이전 건물도 3층 이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었음.

내진설계 적용이 미흡한 것은 내진설계 관련 법령의 강화로 기준에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어 내진설계 적용이 저조하며, '05년 7월 18일 이후에 신축한 대상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음.

내진설계가 안된 학교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시설 내진화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경 학교건물 내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내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 경상북도 사립학교 법인의 법인부담금 미납 시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와 사학법인의 법인부담금 제고를 위한 대책은?

답) '07년도 법인부담금의 법정부담액은 163억원으로 이중 납부액이 24억원, 미납부액이 139억원이며, 법인부담금의 납부율이 15%로 저조한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수익성이 없는 재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

법인부담금 부담률 제고를 위해 법인부담금 최소 부담률 설정을 통하여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법인부담금 전액 미부담 학교에 대한 제재와 저수익재산을 고수익재산으로 대체하여 법인의 부담능력을 제고하겠음.



김영기 의원(청송) 교육환경위원회



2008년 11월 25일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대비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 보호구 비축 등 대처 계획은?

답) 조류인플루엔자는 닭과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 전염병으로 '03년 이후 동남아 국가 등에서 인체에 감염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치료방법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우리나라에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닭, 오리 등 사육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나 인체감염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계절을 초월하여 연중 발생하는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 구축, 인체감염 예방관리 강화 등 AI재발 방지대책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방향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인체감염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문제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적정 온도와 습도 전문적인 보관관리가 필요하고 보관장소의 제약성, 약품의 주기적인 대체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통합보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정부에서는 '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전 국민 20% 수준으로 비축 관리할 계획으로 지역에서 배송요청시 4시간 이내의 배송체계를 완비하고 있어 미 비축에 따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도에서도 개인보호장비 세트는 '09년부터는 도 자체예산으로 1000세트를 구입 보관하여 상황 발생시 즉시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AI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생산농가 보호와 도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질) 관광지 개발사업의 부진과 경북관광의 이점을 살려 관광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관광지 개발사업 경주보문 등 관광단지 4개소, 호미곶, 성류굴 등 관광지 30개소 개발 중에 있으며, 전국 관광지개발 평가에서 낮은 순위로 발표된 것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06년 5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관광지 개발사업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민자유치 부진에 따른 것임.

경북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동해안·3대 문화권 개발, 낙동강·백두대간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경북 명품관광 비전2020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침체된 관광지에 직원 책임제를 운영하고, 투자유치 팸투어 및 전문가 초청 현지방문 컨설팅 등 관광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진력한 결과 금년도 평가에서 경주보문단지가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아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

경북 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경북관광포럼, 관광아카데미 운영 등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행정추진시스템을 혁신하였고, 경북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템플스테이, 고택체험, 새마을연수, 태권도 성지순례 등을 경북을 대표하는 빅4 관광상품으로 추진하고 있음.

질) 경북교통의 교통안전수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도로환경 여건 등 개선 방안은?

답) 교통수준과 관련한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사망률, 협준한 산악지형 도로, 고령인구 등 평가지표상 우리 도가 다소 불리한 점도 있으나 교통안전 지수의 향상을 위하여 올해 1,034억원을 투입해 교통신호기, 위험도록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운수업체 종사자 26천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하고, '09년에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으로 교통사고를 대폭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평가는 교통카드 이용률, 저상버스 도입률 등을 평가항목으로 놓여준 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도의 특성상 대도시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벽지노선 서비스를 개선하고, 매년 노후차량의 11.2%씩 교체하고, 시외버스의 50%는 리무진 버스로 고급화, 현재 포항·경주 등 7개 시군에만 보급되어 있는 대중교통카드를 소시군으로 확대 보급하되 전국 호환이 가능토록 추진하는 한편, 환승할인제, 단일요금제 등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특히,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운수업체의 체계적인 지원·육성과 함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음. 불합리한 도로구조와 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 등 교통관리 개선을 위하여 '12년까지 1,656개소에 4,701억원을 투입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포장도로의 유지개선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에 208억원 투입하는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특히 포항철강공단 도로는 강도가 높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공법으로 보완하고, 과적차량 단속반을 수시로 투입하는 등 도로환경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질) 의료인력 불균형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군별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을 확보할 방안은?

답) 우리 도의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의 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6위이나, 1개의 요양기관이 담당하여야 할 인구는 713명으로 전국 평균인 653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주로 군지역에서 응급의료와 출산 등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전문의 수에서도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가 공공의료보다는 민간의료 중심으로 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개원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라 사료됨.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료자원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하여 진료권별 병상수급 현황에 따라 과잉지역은 신규병상 증설 억제, 부족 지역은 신규병상 확충 지원하고, 보건기관 및 민간 병·의원에 농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확보에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북부 및 서부지역 등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의료 및 출산 사각지역에 대하여는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초음파진단기를 갖춘 이동검진 차량을 구입·운영할 계획임.

현재 지역거점 병원은 포항, 안동, 김천, 울진 4개 지방의료원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의뢰된 환자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등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거점 병원이 없는 시·군에 대하여 먼저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병원 등 1개소씩 지원·육성하여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임.

질) 성매매 방지대책과 전국 최하위를 탈피하기 위한 대책은?

답)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평가에서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 대전 다음으로 하위평가를 받았으며,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06년 시범실시 후 지난해 두 번째로 실시한 평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의 이행정도를 예방, 보호, 집행 지수로 생산하여 평가하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별 보호시설의 현황과 정책의 이행정도를 평가함.

우리 도내 성매매관련 지원시설은 상담소 1개소, 지원시설 1개소가 있으며, 연간 198백만원의 예산 지원하고 있음.

보호분야 평가에서 부진한 것은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도의 피해여성의 지원시설은 '07년 12월 개소하여 금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지난해 평가에서 강월, 충북 다음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금년도 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의 운영실적은 입소정원 9명중 6명이 이용하고, 또한 우리 도는 성매매 집결지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쇠락하고 있기 때문임.

향후 우리 도의 방지대책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성매매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순회 교육, 홍보영상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08년 1~7월까지 전국 224곳에서 78종 1천 169마리의 야생동물이 로드 킬로 희생되었고, 그 중 경북이 전체 21%인 247마리로 가장 많은데, 로드 킬을 감소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답) '최근 3년간 "로드 킬" 발생 현황은 '06년이 1,494마리로 이중 경북이 178마리, '07년이 5,737마리로 이중 경북이 178마리, '08년 7월말 현재 1,169마리로 이중 경북이 247마리임.

전국 최다 로드 킬 발생원인은 잘 보존된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되었으며, 열악한 국·지방도 사정으로 야간에 야생동물 로드 킬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로드 킬을 줄이기 위해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공사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양평가 협의시 동물별 특성을 고려한 생태통로 확보, 침입방지펜스와 생태통로를 병행 설치하여 로드 킬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수로, 교량 등 도로횡단 구조물이 생태통로 기능을 갖도록 유도펜스를 설치토록 하겠음.

질) 관광, 교통, 의료서비스, 노인복지, 여성정책 등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된 분야에 한해서 전문성 제고와 경직된 조직풍토 쇄신차원에서 개방형 직위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 '우리 도의 개방형직위 지정은 총 4개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투자통상전문가 영입을 위한 투자통상국장,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광마케팅사업단장, 한우경쟁력 제고 및 연구환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축산기술연구소 한우연구실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정책실장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방형직위는 공식사회와 민간인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로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낮은 보수로 인한 외부전문가 영입 한계 및 적임자 공모의 장기간 소요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우리 도는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그동안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조직내부의 선의의 경쟁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국장 책임경영제, 주무과장, 팀장에 초임승진자 발탁임용, 전보인사 매칭시스템 도입, 중앙부처, 국회 등 고위직협력관계 운영과 5급 이하 실무중심의 주요 전문직위에 계약직 56명을 지정하여 외부 우수 인력을 영입하여 행정전문성 제고와 조직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하였음.

앞으로 개방형직위 확대 문제는 공직내부에 민간의 우수인재의 영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성과가 뒤떨어진 분야를 포함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개방형직위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음.



의장단 Chair Group

「경북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



이상천 의장(포항시, 한나나)은 11월 11일 대구역 광장에서 농업경영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경북농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헤쳐 나가자고 역설하였으며, 11월 12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공모금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새 힘을 얻으므로, 도민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든든하고 의지할 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11월 12일 도청강당에서 여성의원 및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북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 자기능력을 개발해 나가고 능력 있는 여성들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11월 17일 영천시 군호읍 원제리 소재 「경북 분화재연구원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도내에 신재해 있는 분화재를 잘 보존하여 앞으로 민속학·보존과학·자연과학 분야와 연계를 통하여 분화재의 보존 개발에도 크게 기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11월 24일 안동 학기산 온천호텔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지원방안을 경북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11월 27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농업경영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농촌을 지켜주신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하였다.

한편, 12월 5일 영전체육관에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에 참석하여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국민화합과 도덕성 회복을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자고 주문하였으며, 12월 18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새마을지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여 경북의 새마을운동이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변화시킬 때 우리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이어 12월 23일 제230회 장례회 폐회식후 이어 본회의의장 보비에서 도의원 전원과 각급 기관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경상북도의회 송년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으며, 2009년 1월 7일 도청강당에서 도의원 전원과 각급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300만 전 도민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세기가 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결집하자고 다짐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26일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지방의원 교통비 지급 및 협의회 분담금 개선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과제를 협의하였으며, 또 12월 12일 도청강당에서 중소기업대상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경북프라이드상품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살길은 독창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세계적인 상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하였으며, 또 12월 18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여성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2008 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연말연시를 맞는 만큼 이웃사랑 실천에 힘써 행복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 12월 29일 안동시 운흥동 영호대교 둔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동 생태하천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여 지역경기도 살아나고 새로운 강의 역사와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는 등 우리 도 의회와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08 동북아국제경제포럼」에 참석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 강조

이상호 부의장(경주시1, 한나라)은 11월 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2008 동북아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지역간 상호교류와 협력 제고를 꾀하는 한편, 회원단체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물론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10일 포항체육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4-H 55주년 기념식 및 4-H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4-H회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 12월 18일 「21C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보고 및 새마을지도자 연수대회」에 참석하여 새마을운동이 생활속에 뿌리 내리고 세계적인 운동으로 영원히 계승발전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경북지사 연차대회 및 봉사원대회」에 참석 노란조끼의 천사들 격려

김응규 부의장(김천시2, 한나라)은 11월 5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경북지사 연차대회 및 봉사원대회」에 참석하여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노란조끼의 천사들(봉사원)을 격려했다.

또한 11월 22일 영주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08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자원봉사의 구심체인 자원봉사센터의 위상 재정립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12월 15일 「김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굴뚝 없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패럴 및 시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 홈페이지 안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연중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council.gb.go.kr>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도민의 소리



산동농협 주관 농가주부모임에 참석 주부의 역할 강조



고우현 의원(문경시2, 한나라)은 12월 3일 산동농협 주관 농가주부모임에 참석하여 농촌사회 발전과 지역사회의 초석은 바로 가정에서 나오는 만큼 주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또한 12월 11일 유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박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사라져가는 미풍양속을 잘 지키고 전통과 예절을 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봉화한약우 프리자 준공식」에 참석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봉화한약우가 되길



권영만 행정안전부차관(봉화군2, 한나라)은 12월 9일 봉성면 금봉리에서 「봉화한약우 프리자 준공식」에 참석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봉화한약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20일 청량산 하늘다리에서 「하늘다리의 약속 이벤트」 행사에 참석하여 하늘다리에 새해 소망을 직접 써서 걸면 자신의 소망이 하늘에 가장 빨리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민들의 위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등산으로 건강을 챙기는 일거양득의 기쁨도 누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권인찬 의원(안동시1, 한나라)은 12월 8일 안동시 이천동 소재 「연미사 신축건물 상량식」에 참석하여 신도들과 함께하며 제비원석불과 각종 설화의 보고인 연미사의 성역화사업 추진을 축하하였다.

또한 12월 26일 서안동농협미곡처리장에서 열린 「안동 양반쌀 러시아 수출 선적식」에 참석하여 수출로써 농촌의 활로를 열어 부농의 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농민들이 수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29일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여 전국에서 첫 시행되는 물길 정비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내 어르신 모신 「정나누기 행사」에 참석 건강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



김기홍 건설소방위원장(영덕군1, 한나라)은 11월 9일 영덕군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4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소방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2월 11일 영덕마이웨딩에서 관내 어르신 100여명을 모신 가운데 가진 「정나누기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더 좋은 구미농업을 만들자고 강조



김대호 의원(구미시4, 무소속)은 12월 22일 선산읍 2층 강당에서 「선산청년회의소(JCI) 창립 제38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38년간의 세월 속에 선산JC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11월 11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여 더 좋은 구미농업을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11월 12일 「봉곡 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마을 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을 가지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8의성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 행복한 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당부



김만용 교육환경부위원장(의성군1, 한나라)은 12월 8일 의성을 궁전예식장에서 열린 「JCI KOREA - 의성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의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ضر년 새해에도 더욱더 헌신적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12일 의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8의성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이러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여 전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복한 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밝혔다.

「사업개발협약(MOU) 체결식」에 참석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의 사업기간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

김수용 의원(영천시2, 한나라)은 12월 8일 「고령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공장설립에 관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이번 투자유치로 4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12월 29일 도청 1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개발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경북권 경제자유구역 4개시 가운데 가장 먼저 체결한 개발사업 시행 상호협약(MOU)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의 사업기간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대강 물길살리기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사업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

김숙향 의원(비례대표, 민주노동당)은 12월 29일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북본부에서 진행된 「4대강 물길살리기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사업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12월 30일 물 사유화 저지 경북대책위에서 진행된 경북도청 강당에서 진행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MOU체결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절차무시 문제 등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제4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대주민 서비스 노력 당부

김영기 의원(청송군1, 한나라)은 11월 12일 청송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와 소방가족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26일 청송군청에서 가진 「오창민 청송 부군수 명예퇴임식」에 참석하여 사심 없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친 부군수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제46회 경상북도 4-H 경진대회」에 참석 살맛나는 부자농촌 건설 당부

김영만 농수산위원장(군위군1, 한나라)은 11월 12일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46회 경상북도 4-H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살맛나는 부자농촌, 다시 찾는 환경농촌을 건설하는데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4-H 회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 도의회 차원에서 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영택 건설소방부위원장(구미시3, 한나라)은 11월 8일 주민화합의 잔치인 「양포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각종 고충을 들으면서 주민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2월 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로 어려워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동정

「성주군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 열악한 체육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하자고

김지수 의원(성주군1, 한나라)은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야산 국민호텔에서 열린 「장애인 한마음 캠프」에 참석하여, 장애는 더 이상 사회의 짐이 아니라 더불어 나누어야 할 몫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12월 22일 성일웨딩에서 가진 「성주군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금년 들어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집행진의 노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은 한편, 종합 운동장 하나 없는 열악한 체육환경 개선에 모든 힘을 쏟자고 역설하였다.



「영주시 지체장애인 자립실천대회」에 참석 장애인들을 위로·격려

김종천 의원(영주시1, 한나라)은 11월 3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영주시 지체장애인 자립 실천대회」에 참석하여 그간 장애인 자립을 위해 도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참석한 장애인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또한 11월 21일 영주시 국민체육센터에서 「2008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를 통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11월 29일 「경상북도 청소년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고와 건강한 체력을 가꾸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고령군내 추곡수매 현장 방문, 다양한 농정시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

나규택 위원(고령군2, 한나라)은 11월 6일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광장에서 가진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고령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고, 오늘을 계기로 지역농업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12일 고령군내 추곡수매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FTA 개방으로 인하여 얼어붙은 농심을 달래고 농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6일 「2008 고령군 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모범 여성활동 유공자 및 자원봉사자 표창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여성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청송군 교통장애인협회 총회」에 참석 교통질서확립에 많은 관심 당부

남중식 의원(청송군2, 한나라)은 11월 11일 「경상북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경영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이 지혜를 모아 역경을 헤쳐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5일 「청송군 교통장애인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교통질서확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12월 12일 「청송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장비 확충을 위하여 함께 노력

박기진 의원(성주군2, 한나라)은 11월 7일 성주소방서에서 개최된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장비 확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11월 20일 「초전농협 건물현대식 재건축 준공식」에 참석하여 농협임직원과 조합원이 합심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한미FTA에 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12월 18일 「해병전우회 회장단 이취임식 및 송년회」에 참석하여 더욱 수준 높은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자 선정 심의회」에 참석 심의

박노욱 농수산부위원장(봉화군1, 한나라)은 11월 10일 봉화체육공원에서 열린 「봉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금년 한해 풍년농사를 이룬 농업인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1월 21일 농업인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정 및 명품화육성사업자 선정 심의회」에 참석하여 경북우수농산물제도의 활성화와 명품농산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12월 19일 「봉화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지역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창립9주년 기념식」에 참석 환경보전에 앞장서온 회원 격려

박병훈 의원(경주시2, 한나라)은 12월 5일 신라문화체육장에서 열린 「경주환경운동연합 창립 9주년 정기총회 및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리 지역의 환경지킴이로서 환경보전에 앞장서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12월 10일 경주황실호텔에서 열린 「제8회 불우중증 및 경로 장애인가족 위안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가 없는 세상, 장애를 받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며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꼭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20일 봉사단체인 「시밀레」 소속으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5세대에 각각 연탄 3백장과 생필품을 배달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내자고 격려했다.



「제20회 향토봉공상 시상식」에 참석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 당부

박순범 의원(칠곡군2, 한나라)은 11월 14일 칠곡군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진 「어르신 잔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시설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고, 공식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1월 21일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제20회 향토봉공상 시상식 및 2009년도 청년협의회 칠곡군 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한결같이 단합된 힘으로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도군의용소방대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줄 것을 당부

박순열 의 원(청도군1, 한나라)은 11월 12일 청도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청도군의용소방대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모두 한마음이 되어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9일 청도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청도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2008년 한해동안 청도청년회의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12월 16일 「2008년 청도군바르게살기협의회」에 참석하여 청도발전을 위해 바르게 살기협의회 모든 분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제13회 고령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살기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자고 제의

박영화 의원(고령군1, 한나라)은 11월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고령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농민들에게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추수감사제를 올린 후 어려운 농업현실을 이겨내고 따뜻한 정이 오기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또한 12월 16일 대가야국악당에서 열린 「고령군 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으로 대가야제협축제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대회관계자 및 참석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008 영덕군 여성 지도자 대회」에 참석, 지역사회에 밝은 등불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박진현 의원(영덕군2, 한나라)은 11월 11일 영해 생활체육공원에서 여성단체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영덕군 여성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30일 영덕군 농촌전통테마마을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하여 전통테마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이용하여 농촌과 서로 상생하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12월 12일 「2008 영덕교육실적보고회 및 제9회 영덕 학생종합예술제」에 참석하여 올바른 인성과 창의를 지닌 인재육성을 위해 새롭고 독창적인 시책들을 개발하여 영덕교육을 한단계 향상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후포 금음어촌계 풍어제」에 참석, 마을의 번영과 선원들의 안전을 기원



방유봉 의회운영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11월 1일 울진군 후포면 금음3리에서 열린 「후포 금음어촌계 풍어제」에 참석하여 금음리 주민들의 만선과 마을의 번영, 풍요와 배를 타는 선원들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또한 12월 4일 남울진청년회의소(JC)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청년연합회가 울진군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단위 청년회 활성화와 청년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12월 8일 울진군 기성면 사동2리 「어민복지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마을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복지회관이 현대적인 시설로 아담하게 건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사랑의 열매달기 가두캠페인」에 참석, 나눔의 사회분위기 조성 당부



백명학 의원(김천시1, 한나라)은 11월 12일 제1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조직체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농업인 조직체 한마음 행사」에 참석하여 농업여건 변화로 어려워진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12월 4일 김천시교육청 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내 교육현실과 방안 등 앞으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어 12월 11일 「사랑의 열매달기 가두캠페인」에 참석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눔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가두 캠페인을 하였다.

「구미교육청 및 집행기관 현안사항 간담회」에 참석 지역 인재육성 당부



백천봉 교육환경위원장(구미시1, 한나라)은 11월 4일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구미교육청 및 집행기관 현안사항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미가 교육특구로 지정된 만큼 교육 정주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6일 도립구미도서관에서 열린 「2008 구미지구 평생학습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주민 모두가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강조하였다.

「새터민 합동결혼식」에 참석 더불어 살아가는 계기 되길



손덕임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11월 5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년도 경북지사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경북에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공로로 2008년 지사연찬대회 회원 유공장(금장)을 수상하고, 앞으로도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11월 10일 도의회 재래시장연구회 의원모임 「연구결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지역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과 성과의 미흡에 대해 시장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20일 「새터민 합동결혼식 및 화합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새터민과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이·통장 연합회와의 「도농간 교류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손진영 의원(영주시2, 한나라)은 12월 19일 「안정면 자치위원회 작품전시회」에 참석하여 비평 생업에도 작품을 전시해준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격려하였으며, 이어 12월 21일 동짓날 파머스 마켓에서 열린 「영주시민 팔죽먹기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과 어울려 하나되는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12월 22일 영주 아모르웨딩에서 가진 서울시 종로구 이·통장 연합회와의 「도농간 교류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어르신들의 전당 준공식」에 참석, 편안한 휴식과 문화생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길

송필각 의원(칠곡군1, 한나라)은 11월 14일 칠곡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어르신들의 전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과 문화생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12월 3일 외관읍 리베라웨딩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칠곡군지부 2008년도 청·여성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12월 4일 「사단법인 6.25참전유공자회 칠곡군지회 창립 8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 다짐대회」에 참석하여 오늘 행사를 통해 더욱 단합하여 발전하는 6.25참전 유공자회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

안순덕 의원(의성군2, 한나라)은 11월 5일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12월 17일 「단북면 의로운 쌀작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농업의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로운 쌀」을 전국 최고의 고품질 브랜드로 육성해 준 작목반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12월 18일 「안계청년회의소(JC)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제4회 예천군수기 군민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선수들을 격려

윤영식 의원(예천군2, 한나라)은 11월 14일 한천게이트볼대회장에서 열린 「제4회 예천군수기 군민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11월 27일 「지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기공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지보면의 숙원사업이던 다목적강당이 완벽하고 빠른 공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12월 10일 「용궁면 읍부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주민들의 회의장소 등 다양하게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8 구미지구 평생학습 축제」에 참석,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윤창욱 의원(구미시2, 한나라)은 11월 6일 도립구미도서관에서 열린 「2008 구미지구 평생학습 축제」에 참석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12월 10일 구미 센쥬리호텔에서 열린 「구미청년회의소 창립 34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구미청년회의소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1일 「2008년 해병대 전우회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구미시를 위하여 더욱더 진보된 해병 전우회가 되길 당부하였다.





의원 동정



「다문화 가정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 지역사회 조기정착 당부

이상용 의원(영양군2, 한나라)은 11월 7일 영양읍 대천리에서 가진 「2008 숲가꾸기의 날」 체험 행사에 참석하여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숲을 더욱 울창하게 가꾸는데 모두 적극 동참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21일 군민회관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이주여성들이 문화적 이질성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22일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하여 그 동안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았으나 의료진과 화상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역의료서비스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의료환경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군민들과 함께 자축하였다.



「2008 울릉도 트래블마트」에 참석, 울릉도 홍보대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울릉군1, 한나라)은 12월 12일 울릉군청회의실에서 「미국 LA 영어 연수 대상학생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영어체험학습은 물론 모든 문화 및 기타 미국의 생활상을 많이 배우고 자기실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울릉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농촌지도자회 연말총회」에 참석하여 이젠 새로운 영농기법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다같이 힘모아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12월 19일 대구 인터블고호텔에서 열린 「2008 울릉도 트래블마트」에 참석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울릉도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울릉도 홍보대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정역 테마펜션열차 개장식」에 참석 체류형 관광시설물 만든 코레일에 감사

이시하 행정안전복지위원장(문경시1, 한나라)은 11월 22일 문경여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 문경시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보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11월 27일 가은읍 죽문1리에서 열린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숙원이었던 마을회관을 준공하게 돼 매우 기쁘고 그동안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2일 「불정역 테마펜션열차 개장식」에 참석하여 영남팔경 중 으뜸인 이곳 진남교반에 체류형 관광시설을 만들어 준 코레일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문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2008 자원봉사 및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참석,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계기

이우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산시1, 한나라)은 11월 1일 남천둔치에서 열린 「2008 자원봉사 및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참석하여 시민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3일 석정관광호텔 지하 웨딩홀에서 열린 「경산청년회의소(JCI) 2009년도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경산상공회의소의 지역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12월 12일 「2008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과 국가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준 체육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스포츠클럽의 발전과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 스포츠의 문제점 토론

이재철 통상문화부위원장(상주시2, 한나라)은 11월 20일 상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재학생 및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잔디운동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잔디운동장 조성에 공이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월 22일에는 신봉교회에서 주최하는 행복을 파는 바자회에 참석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행사 참석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12월 18일에는 상주시스포츠클럽에서 주최한 「스포츠클럽의 발전과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스포츠의 문제점과 스포츠발전, 비전 등을 토론하였다.

「연말불우이웃돕기 자선대회」에 참석 지역 복지증진에 노력

이종원 의원(상주시1, 한나라)은 11월 7일 「상주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 해 온 의용소방대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1월 8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역체육활동 활성화 방안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12월 23일 「연말 불우이웃돕기 자선대회 SAXPHONE연주회」에 참석하여 색소폰 연주를 하고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홍시를 이용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가, 김장나누기(3,000포기) 일일봉사 활동

이준호 의원(청도군2, 한나라)은 11월 4일 청도군 새마을지회에서 열린 「감홍시를 이용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가하여 새마을부녀회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누기(3,000포기) 일일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한 12월 20일 청도모계중고 관제관에서 열린 「청도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가하여 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지역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비축미곡 수매 현장을 방문, 농촌문제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

이현준 의원(예천군1, 한나라)은 11월 17일 용문면 상금농협에서 펼쳐진 공공비축미곡 수매 현장을 방문하여 열악한 농촌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 꾀꿉이 일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면서 앞으로 농촌문제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2월 19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가진 「경북양돈협회 2008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등 연말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농민 살리기 매진하였다.



「4-H인 한마음대회」에 참석, 현대인에게 4-H정신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줄 것을 당부

장경식 기획경제부위원장(포항시3, 한나라)은 12월 10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4-H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4-H정신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1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가진 「포항자유무역지역지정 설명회」에 참석하여 경북도와 포항시가 공동해 해운물류 중심거점으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어 12월 19일 「2008년 결혼이민여성 사회적응교육 수료식」에 참석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예절, 정보화교육, 역량강화 직업교육 등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2008 신라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신라의 문화가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당부

장길화 의원은(비례, 한나라)은 11월 1일 경주드림센터에서 열린 「2008 신라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앞으로 신라의 문화가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관계인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3일 「건천운동장 조성 기공식」에 참석하여 이 운동장이 웰빙시대에 걸맞는 건강 욕구 충족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시설완비를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동정



「포항시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석,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 당부

장두욱 의원(포항시2, 한나라)은 11월 1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포항시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석하여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함께 모두가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12월 19일 포항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 결혼이민여성 사회적응교육 수료식」에 참석하여 결혼 이민여성들이 당당한 사회적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사회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학생 돕기 사랑의 찻집」 행사에 참석 봉사활동 전개

장병익 의원(군위군2, 한나라)은 11월 7일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6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별로 차려진 부스를 일일이 방문하며 소방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봉사자로서 헌신적인 대민 봉사활동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12월 18일 군위농협에서 열린 「선도학생 돕기 사랑의 찻집」 행사에 참석하여 손수 다과를 나르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지역사회도 발전할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수익금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여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의 숙원사업 청취와 함께 대책을 논의

장세현 의원(포항시1, 한나라)은 11월 6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돌고래축제」에 참석하여 기능과 기술습득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며, 교직원과 학부모들과의 만찬에서는 학교발전과 취업에 관하여 의견을 나눴다.

또한 11월 10일 「환여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의 숙원사업 청취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어 12월 2일 「농업인 농산물 판매행사」에 참석하여 농업인들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홍보에 동참하였다.



「2008년도 교육실적 보고회」에 참석, 올진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전찬길 의원(울진군1, 한나라)은 11월 6일 한수원 운동장에서 열린 「2008 올진 한수원 노조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노조원들의 숙원사업인 사택건립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노조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12월 10일 「2008년도 울진군 바르게살기 다짐대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과 역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어 12월 17일 「2008년도 교육실적 보고회」에 참석하여 올진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들과 도청이전예정지 현장을 방문 정책대안 모색

정경구 의원(안동시2, 한나라)은 11월 10일 안동농협 「벼 건조시설(DSC) 준공식」에 참석하여 논농업의 기계화와 규모화에 필수적인 벼 건조 저장시설의 건립으로 지역농업인의 경쟁력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11월 12일 안동체육관에서 「제46회 경상북도 4-H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지덕노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북농업의 희망을 이어가는 4-H회원들의 화합을 다짐하는 장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12월 18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들과 도청 이전예정지 현장을 방문하여 도청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재원확보대책, 유관기관 이전대책 등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2008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사랑과 봉사정신을 통해 봉사활동을 실천 당부

정무웅 의원(울릉군2, 한나라)은 12월 4일 「울릉군새마을지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18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통해 봉사활동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 어울마당 원격 건강모니터링시스템 개통식」에 참석, 도정홍보 및 관계자들을 격려

조동만 의원(영양군1, 한나라)은 11월 7일부터 11월 8일(2일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경북 사과홍보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참여한 도민들을 격려하고 경북사과의 우수성을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또한 11월 11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열린 「영양군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의회와 도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였다. 이어 12월 22일 「청소년 어울마당 원격 건강모니터링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하여 도정홍보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2008 포항시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 참석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당부

채옥주 의원(비례대표, 한나라)은 11월 1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08 포항시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및 홍보·직판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웰빙시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당부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농산물 이용을 적극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26일 포항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 포항시 여성단체 활동보고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포항 발전의 중심에 우리 여성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서울 아리랑TV에서 「2014년 BPW세계총회 유치」에 관한 인터뷰

최윤희 의원(비례대표, 한나라)은 11월 6일 구미평생교육원 여성대학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특강을 하였으며, 이어 11월 11일 서울 아리랑TV에서 「2014년 BPW세계총회 유치」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으며, 다음날 저녁에 30분간 전 세계에 방영되었다.

또한 11월 26일 구미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미여성발전위원회(위원장 : 최윤희)를 개최하여 2009년 사업추진계획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어 12월 8일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회에 참석하여 2009년도 사업계획 및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하였다.



「2008년도 건강사랑 한마당행사」에 참석,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영천시1, 한나라)은 11월 12일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사랑의 대모 결연식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에 참석하여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하여 가족간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6일 영천실내체육관에서 가진 「2008년도 건강사랑 한마당행사」에 참석하여 36개 웰빙마을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실버건강 체조 등을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이어 12월 13일 영천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관내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목욕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방분권과 지방세계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재정확충방안 논의

황상조 의원(경산시2, 한나라)은 12월 2일 석정관광호텔에서 열린 「경산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경산청년회가 더한층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12일 웨딩아라야스에서 가진 「2008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베이징올림픽 및 전국체전 등 대회수상자 등 지역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12월 19일 「지방분권과 지방세계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북도의회와 대응방향과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영남일보 2008. 11. 1

“기만행위에 분노” “상생발전 보장하라”

대구시·경북도의회 각각 성명서 내고 강력 반발
균형발전 지방의회 5일 대구서 대응책 모색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지방의회가 들고 일어났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31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으며, 지역균형발전 지방협의회는 지역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하는 정부의 기만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당초에 약속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간 상생발전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와 함께 기업과 적극적인 지방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협의회(공동회장 최문환 대구시의회 의장·정상수 대구 동구의회 의장)는 오는 5일 대구에서 삼부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국토이용 합리화계획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공조체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

경북매일신문 2008. 11. 5

경북도·의회 “행정체제개편은 중앙집권 회귀”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을 놓고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지역정가의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도를 국가사무만 보는 행정기관으로 전락시켜 사실상 도를 폐지하는 것

회에 제출하자 “중앙집권시대 회귀”하는 꼴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북도의원들도 “국회에 제출된 지방행정체제 제정안은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지방을 없애는 이른바 ‘중앙집권 강화 법안’”이라

전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도지사가 임명직으로 전환되면 시·군은 예산을 가진 정부와 대등이므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 필요성부터 차분히 논의하고,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에 역행해서

경북일보 2008. 11. 12

내일부터 41일간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제230회 정례회

경북도의회 제 230회 정례회가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정례회는 경북도 각 실국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내년 도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13일 김관용 도지사와 임성빈 도 부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 도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장연설 및 제안설명을 한다. 이어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도 및 교육청 각 실국 및 도내 각사업장,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4일부터 25일까지 제 2차, 3차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친다.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에 대한 각 실국별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년 본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이후,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최종처리하게 된다.

다음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심사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이후, 19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다.

이어 23일 오전 11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및 현안사항, 올해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고 올해의 사열정를 마무리하게 된다.

양승복기자 yang@kyongbuk.co.kr

“철저한 정책감사 펼치겠다”

이상천 도의회의장



이상천 의장

“철저한 정책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쓰겠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열리는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철저한 정책감사를 선언했다.

그는 “15개 실국, 51개 소속기관에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미 1천여건의 감사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라며 “현장위주의 상임위원회의 활동들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대책방안 등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서류위주의 감사로 ‘수확 결과식’ 감사, 제형식제로 하는 감사, 한강주의 사고방식으로 임하는 한강주의 감사로 진행된 부분도 있었지만 점은 반성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오랜 시간과 다년간의 근무경험으로 조직화 된 집행부 공무원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며 “이번 8대 의원들은 전체 55명중 70%인 38명이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역대 어느때보다 활발한 감사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개헌 초기에 구성된 의정연구회의 경우 도의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역구 관리 등에 비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임위원회의 배치된 5급 전문위원들도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복기자 yang@kyongbuk.co.kr

대구일보 2008. 11. 11



경북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결과 보고회

경북도의회 재래시장연구회 의원모임(회장 이현천)은 10일 오전 11시 도의회에서 경북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북 재래시장 유통발전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시장 살리기’ 나섰다

재래시장·유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회·세미나 잇따라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재래시장과 유통단지 등 지역 도매 유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 소속의 원로인인 재래시장연구회 의원모임(이하 연구회)은 △전선시장 △근린생활시장 △중심상권 △전통시장기차 △새마을시장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대구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1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구종합유통단지개발사업의

경북일보 2008. 11. 14

한혜련 의원 “금호강 자전거도로 개설해야” 박노숙 의원 “산불감시 도비부담 상향해야”

△한혜련(영천 경제통상문화위원회)의원

자전거가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영천에서 경산시를 경유해 대구시 동구까지 이르는 금호강변 자전거도로의 개설을 제안한다.

금호강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면서도 경북도민과 대구 시민들에게는 건강증진과 자연생태학습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동남부지역의 금호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영천과 경산지역의 문화답사 등도 활성화해 장기적으로는 경주, 포항 등과의 관광연계도 모색하고 나아가 낙동강프로젝트로 인한 소외지역의 지역균형개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노숙(봉화 농수산위원회)의원

산불 예방을 위해 도는 시·군과 공조해 산불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산불예방과 감시 진화를 모두 떠맡고 있는 일선 시·군의 경우 엄청난 예산부담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유급금지원 운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크게 부족해 시군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원의 시



한혜련 박노숙 이상운 송말익

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산불감시원의 도비부담을 현재 10%에서 50%로 인상하고 유류대 인상요인을 감안해 단가를 현재의 5만2천5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운(영양 기획경제위원회)의원

수렴동들에 대한 포획수량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에 어느 업자가 포획하든 수렴동마다 일정 수만큼만 포획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할 경우 유해조수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수만큼 포획되면 더 이상 수렴동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개체조절이라는 예초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체 포획수량을 지정해놓

고 그 이상 되면 수렴을 금지함으로써 업사들이 밀렵꾼으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송말익(칠곡 행정보건의위원회)의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해 6월 제정됐다. 경북이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의 마지막 보루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 부상을 격전지였음을 감안해 조례 제8조에서 참전수당을 특별히 규정했다.

하지만 참전수당을 조례제정이 2년이 되어가는 내년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의결하고 도지사가 공포한 법률로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양승복기자



60 2008년 제59호



62 2008년 제59호



경북일보 2008. 12. 15

경북도 내년 예산 46억원 삭감

도립의료원 채무상환 18억4천만원·공무원해외연수 3억 등

도교육청도 1

경북도민일보 2008. 12. 19

업 2억원, 경북학숙운영비 1억4천만
원, 과수생육과 기자재지원 1억원,
수확장비보조 1억7천100만원 등이

경북도와 도교육
이 각각 46억원, 1
다.
경북도의회 예산
는 지난 12월 경북
제출한 내년 예산
다.
예결위는 이
도의 내년 예산
중 일반회계는 1
만원을 감액하고
만을 증액해 자
예비로 돌렸다.

“도청이전 신도시개발 차질없이 이행해달라”

경북도의회 기획예산위, 안동·예천 현장답사

경북일보 2008. 12. 24

도청이전사업에

도의회 정례회 폐회...이상천 의장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앞
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

이상천 의장은 송년사에서 “올 한
해도 도정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어
려움 그리고 보람이 함께 있었던 한
해다”며 “우선 300만 도민의 복리증

경 및 구역청을 개칭하는 등 지역 발
전의 전기를 마련한 한해다”고 올해
활동을 평가했다.

이 의장은 “도의회도 앞으로 도민
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준수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
실히 수행하는 물론 도민에게 고품
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살맛나는 희망경
북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송북기자 yang@kyongbuk.co.kr



이상천 의장이 23일 도의회 본회의장 로비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송년사를 하고 있다.

일간대구경북 2008. 12. 24

3일 제230회 정례



살맛나는 희망경북 ‘앞장’

도의회, 제230회 정례회 폐회·송년회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23일 오전 11시 제23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임위원회의와 예산

과 도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
으로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
은 감사하
원사업인

대구신문 2008. 12. 31

도의회, 현장 의정 활동 전개

도청이전 조례안 등 101건 안건 처리

경북도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정례회
와 임시회를 11회 열고 회기 125일 동
안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101건을 처리했다.
도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시정 및 건
의 촉구사항 282건, 도정질문을 통한
도정현안 사항 시정·개선 요구 127건,
환경행정관리 일원화 촉구 결의안 등
을 채택해 중앙 및 관계기관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문했다.
예산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은 물론 물가안정 및 서
민들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
투자 사업효과가 높고 무 골이가도록
예산의 지역·계층간에 적절하게 배분
되도록 심사했다.
아울러 2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체과 일선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
론을 도정에 반영해 생산성과 정책수
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호우·우박
등 피해현장과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 확인을 40회 실시
하는 등 활발한 현장주위 의정활동
전개했다.
이상천 의장은 “제8대 후반기는 내
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을 통한 생산적
인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전력을
왔다”며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완성을 위한 지방의정 인프라
구축과 21C 지식정보화 시대를 열어
가는 제반여건을 구비하는 가시적 성
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동훈기자 lee0071@idaegu.co.kr

경북일보 2008. 12. 30

“생산적인 지방의회상 정립 총력”

101개 안건 처리 활발한 의정활동...도청 이전예정지 안동·예천 결정

올해 경북도의회 상회

경북도의회는 올 한 해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통한 생산적인 지방의
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전력을 올렸
다. 지방의정 인프라 구축과 21C 지
식정보화 시대를 열어 가는 제반여
건을 구비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



는 의회 운영을 통한 생산적인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전력을 올렸으며, 지방의정 인프라 구
를 열어 가는 제반여건을 구비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의장은 “도의회는 항상 영
민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수용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
지대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
로도 양심과 정경관 넘치는 새로운
지방정치를 펼쳐 300만 도민의 복
지증진과 풍요 경북의 위상을 세우
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
다.
영송북기자 yang@kyongbuk.co.kr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동해민족의 섬 독도!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 512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복, 신라영토 귀속 - 삼국사기
- 1693 안용복은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서계를 받음 - 속종실록
- 1900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 41호를 제정·반포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 1914 독도를 경상북도로 편제하여 오늘에 이름
- 1946 연합국 총사령부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 667호로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 1953 독도 의용수비대 조직 - 독도경비(대장 홍순철 등 대원 33명)
- 1956 국립경찰 독도경비 인수
- 1981 독도에 주민등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 67)
- 1982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 천연기념물 제 336호(독도해조류번식지)
- 1999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독도관리지침에 의해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
- 2000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 도동리 산 42-76번지 → 독도리 산 1-37번지
독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환경부)
- 2003 정보통신부 독도에 우편번호 부여 '799-805'
- 2005 탐방로 등 11필지 공개제한지역(동도) 지정해제 : 입도 허가제 → 신고제로 전환
지번변경 : 독도리 산 1-37번지 → 독도리 1-96번지
- 2006 문화재 구역 지정 : 37필지 180,902m² (보호구역) → 101필지 187,554m² (지정구역)

